

가부장가정과 중화 그리고 SNS상에서의 성희롱

이성식* · 장하영** · 이채한***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는 SNS상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페미니스트 범죄학들의 주장에 따라 가부장 환경요인을 주요 설명요인으로 제시하였고 가부장가정일수록 SNS상에서 성희롱의 가능성이 높은지를 검증하였다. 아울러 가부장가정이 어떻게 SNS상에서 성희롱에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매개변인들을 고려했는데 기존 페미니스트 논의들에 따라 성희롱태도, 이중적 성의식, 여성 성적 대상화, 강간통념을 제시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화의 영향력이 중요할 것이라는 가설과 함께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그 모형을 검증하고자 했다. 서울시 남녀 대학생 SNS 이용자 27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예측대로 가부장가정은 SNS상의 성희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본 연구모형에 따라 가부장가정의 대학생은 성희롱태도, 이중적 성의식, 여성성적대상화, 강간통념, 그리고 중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매개변인들 중에서 SNS상의 성희롱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변인은 중화가 유일했다. 즉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가부장가정의 대학생은 중화의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이유로 SNS상의 성희롱을 더 하게 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가부장가정의 대학생은 그러한 매개변인들에 매개됨이 없이 직접적으로도 SNS상의 성희롱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1.3.31.1.325>.

❖ 주제어 : SNS상의 성희롱, 가부장가정, 중화, 페미니스트 범죄학

*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 숭실대 대학원 석사.

*** 케이스탯리서치 대리, 숭실대 졸업.

I. 서론

근래에 우리 사회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시대가 도래되어 사이버공간에서의 성범죄가 사회문제가 되었고 최근에는 디지털성범죄로 불리는 몰카나 성관계 영상유포 등의 범죄가 일어나고도 있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범죄율이 낮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율이 높은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남녀불평등이 심한 가부장적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WEF)이 집계한 2018년도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9개국 중 115위에 랭크될 정도로 남녀불평등이 심하며 그중에서도 남녀임금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고 OECD 국가 중에서는 15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찍이 페미니스트 범죄학자들이 성범죄의 근원을 가부장사회의 남녀불평등에 두었듯이(Dobash and Dobash, 1979; Yllo and Straus, 1990) 이 연구는 사이버 상에서의 성희롱 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이와 같은 가부장요인의 작용에 주목하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SNS에서의 성희롱에 주목하기로 하는데 페이스북과 같은 SNS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은 모르는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에 아는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범죄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SNS상의 성희롱에는 대화 도중 이성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직접적인 성희롱이외에도 성표현물의 전달로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또한 모바일 메신저 단톡방에서 친구들끼리 이성의 외모 등을 조롱하는 성희롱 등의 행위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SNS 이용률이 높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통해 SNS상의 성희롱의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SNS상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이 현실의 연장선 특징을 가질 것이라는 점에서 가부장요인을 주요 설명요인으로 다루려고 한다.

이를 위해 페미니스트 범죄학자들의 주장을 정리하고 그 논의를 근거로 가부장요인으로 가부장 가정환경의 영향력을 다룰 것이다. 즉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가정이 가부장가정일수록 SNS상에서 성희롱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지를 살펴볼 것이다. 인터넷상에서의 서로 모르는 익명 관계의 성범죄는 현실과 달라 가부장요인과 크게 상관 없을 수도 있지만 SNS는 서로 아는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성범죄를 설명하기에 언급되었던 가부장요인이 잘 적용될 것이라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페

미니스트 범죄학자들의 논의에 따라 가부장 가정요인이 가부장 성의식 요인들을 매개로 SNS성희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런데 이 연구는 Sykes와 Matza(1957)의 중화 논의를 대학생의 SNS상의 성희롱을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즉 가부장요인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면서도 특히나 온라인상 성희롱을 설명에 있어 그 특성상 중화요인이 작동할 것으로 본다. 온라인의 상황에서는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기 쉽고 또한 그 피해가 신체적이지 않아 상대피해를 과소평가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중화하기 쉬운데 이에 이처럼 중화를 성범죄 논의에서 다른 논의들을 기초로(Scully and Mazolla, 1984; Weiss, 2009; Boyle and Walker, 2016) 중화를 주요 요인으로 다루려고 한다. 그리고 어떻게 가부장 환경요인이 중화를 통해서 온라인상에서의 성희롱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그것을 검증하려고 한다. 기존 페미니스트 범죄학자들은 이러한 중화의 작동 측면에 소홀했지만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의 성희롱을 설명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다룸에 있어 그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처럼 이 연구는 대학생의 SNS 이용상에서의 성희롱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가부장 요인으로서 가부장 가정환경의 영향을 다루려고 하며 여러 가부장 성의식 요인 이외에 아울러 중화의 경로 메커니즘을 다루고 이와 같은 연구모형을 경험연구를 통해 검증하려고 한다. 이 연구는 그 연구결과를 기초로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를 논의하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II. 이론적 논의

1. 가부장환경과 성희롱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에 따르면 성희롱은 대부분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로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성불평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Dobash and Dobash, 1979; Yllo and Straus, 1990). 성희롱은 생물학적 성문제가 아닌 사회적 성 젠더의 문제이고 사회의 남녀불평

등과 그것에서 비롯된 남성의 여성에 대한 권력과 지배의 표현이라고 본다. 즉 성희롱/성폭력은 젠더화된 가부장적 위계에서 남성들의 지배적 위치를 지속시키기 위한 욕망에서 비롯되며 권력의 행사나 통제의 수단이 된다고 본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은 가부장제 질서를 반영하며 또한 그것을 유지, 강화, 재생산한다. 페미니스트들에 따르면 강간과 같은 성폭력은 단순히 성범죄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며, 이 또한 단순히 폭력이 아니라 여성을 종속시키고 지배, 통제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폭력은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반영하며 남녀간의 성불평등의 산물이다. 즉 성폭력 등은 남녀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비롯되며 그러한 불평등체계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희롱 또는 성폭력, 폭력은 가부장제 사회질서를 반영하고 그것을 강화한다고 주장된다. 그러한 점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사회단위의 연구에서는 남녀불평등수준과 성범죄율의 관계에 주목했지만(Johnson, 2014), 개인을 단위로 하는 연구에서는 가부장가정의 전통적 성역할을 갖거나 남성지배적 의식을 갖는 남성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살펴보아 왔다(Powell, 1986; Pryor, 1987; Smith, 1990; Simonson and Subich, 1999; Russell and Trigg, 2004).

이러한 가부장요인들은 사이버성희롱 연구에서도 적용되어 왔는데, 사이버상의 온라인성희롱이 현실의 연장선으로 가부장요인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로 김은경(2001)은 가부장의식이 사이버성희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전통적 가부장의식을 갖는 남성이 여성의 사회진출로 위기감과 불안감 때문에 사이버성희롱을 저지르게 된다고 보았다. 이후 연구에서도 남정림(2005)은 사이버성희롱을 성충동, 놀이, 가부장권력론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세 논의에서의 요인들 모두가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이성식(2005)의 중고등학생 대상 현실 오프라인에서의 성희롱과 사이버성희롱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현실의 성희롱은 남성지배성 등의 가부장요인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사이버성희롱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그 논의에서는 익명과 비대면의 인터넷사용에서는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며 상대의 성의 단서가 불분명하여 남성과 여성의 가부장적 권력관계가 작동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았다. 하지만 근간의 SNS 사용의 경우는 현실에서 서로 이미 아는 사이인 경우도 많고 상대의 성에 대한 단서가 많기 때문에 현실의 성희롱과 성폭력의 경우에서처럼 상대의 성을 알고 남성

이 여성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이유에서 성희롱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성식, 2010).

2. 중화의 작용

Sykes와 Matza(1957)의 중화이론에서는 행위자의 성희롱 등의 일탈에 있어서 중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일반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일탈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하위문화이론가들에 대한 비판에서 논의를 시작하면서 일탈자가 하위문화에 속해 그와 관련한 가치와 태도를 학습, 내면화하여 일탈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 대신 대부분의 청소년이나 일탈자들은 비행이나 일탈이 나쁘다는 인습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비행자들은 체포와 검거 시 고개를 숙이는 등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보이며 적어도 법을 지키는 사람을 존경하는 등 비행과 일탈, 범죄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중화이론에서는 이처럼 대부분의 비행소년들은 일반 소년들처럼 인습가치를 받아들인다고 보았다. 비행이나 일탈은 간헐적으로 우연히 일어난다고 보았고 그렇다면 우연한 기회에 비행을 할 상황에서 평소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비행자들이 비행을 함에 있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또는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때 그들은 표류라는 용어로 평소에는 인습가치를 갖고 있어 비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청소년이 어느 순간에 표류하여 인습가치에 벗어나는 비행을 저지른다고 했다. 이렇듯 중화이론에 따르면 비행자 대부분이 인습가치를 갖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기존 차별접촉/학습이론가들이 강조해왔던 개인의 비행태도나 가치는 설명요인이 되지 않고 그 대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핑계를 댈 중화가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Sykes와 Matza는 그러한 중화에 있어 다섯 가지의 중화의 기술을 제시하면서, ‘책임의 부인’, ‘피해자 부인’, ‘손상의 부인’, ‘비난자의 비난’, ‘충성심 요구’ 등의 중화의 기술이 비행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동안 중화의 기술은 경험연구를 통해 청소년비행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탈영역에 적용되어, 예컨대 청소년비행(Hindelang, 1970; Minor, 1981; Mitchell et al., 1990), 상점절도(Agnew and Peters, 1986), 음주나 마리화나 사용(Dodder and Hughes, 1993), 폭력(Agnew, 1994), 그리고 아내폭력(Dutton, 1986)에 이르는 다양한 유형의

일탈과 범죄에 연구되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중화의 기술의 영향력은 일관되지 못한 복합된 결과를 제시해 왔다. 그와 같이 일관되지 못한 경험연구의 결과는 중화이론이 좀 더 일반인의 간헐적이고 우연적인 일탈을 잘 설명하지만 일부 심각한 범죄자 층에서는 적용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Topalli, 2005). 일부 심각한 범죄자는 인습가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겐 중화가 불필요하다. 그 대신 심각한 범죄자보다는 평소에는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일탈행동 시 중화를 하여 그 행동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처럼 연구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고 그러한 이유로 중화는 심각한 범죄 층보다는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잘 적용되는 결과를 보인다(Mitchell et al., 1990; Dodder and Hughes, 1993; Rettinger and Kramer, 2009).

이처럼 중화 논의는 일반인의 일탈행위에 더 적용 가능한데, 근간에는 온라인 일탈에 잘 적용되고 있다. SNS와 같은 온라인에서는 심각한 범죄층 이외에 일반인도 간헐적으로 일탈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실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것도 온라인 일탈은 신체적 해를 가하지 않기에 더 중화하기 쉬우며 익명이나 비대면의 여건이 그것을 더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할 때 그 영향은 클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내에서 중화이론은 대학생들의 온라인에서의 일탈행위에 적용된 바 있고 지지를 받고 있다(이성식, 박정선, 2009; 김한민, 김기문, 2018).

중화 논의가 온라인성범죄에 적용된 적은 없지만 기존의 성범죄에 적용된 적이 있는 점에서(Scully and Mazolla, 1984; Weiss, 2009; Boyle and Walker, 2016) 중화는 대학생의 온라인성희롱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자신의 행위가 그냥 장난으로 했다거나 성폭력 등의 신체적인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상대도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친구들과의 단톡방 상황에서 누군가에 대한 외모비하는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중화를 하고 성희롱을 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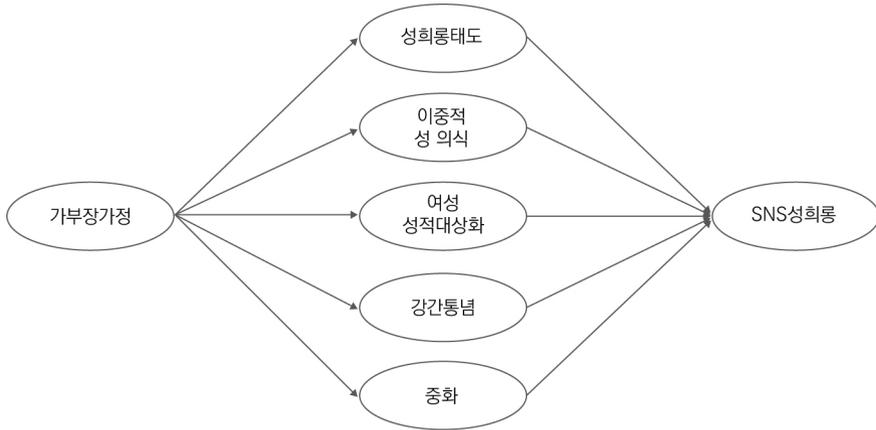
Ⅲ. 연구모델과 방법

1. 연구모델

이 연구는 가부장 환경요인과 중화를 SNS상의 성희롱을 설명함에 주요 요인으로 다룸에 있어 다음과 같은 연구모델을 구성하려고 한다. 우선 중화의 작용에 대한 논의에 앞서 [그림 1]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연구모델에서 보이듯이 기존 페미니스트 연구지들에 의하면 가부장환경에 있게 되면 성희롱 및 성폭력관련 성의식을 갖게 되고 그러한 성의식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가부장 환경요인으로 가부장 가정을, 그리고 가부장관련 성의식으로는 성희롱에 대한 태도를 포함해 이중적 성의식, 여성 성적 대상화, 강간통념 등을 제시한다. 성희롱에 대한 태도는 성희롱 정도는 크게 나쁘지 않고 해도 된다는 의식과 태도를 말하고, 이중적 성의식은 남성은 성적으로 강해야 하고 성경험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성은 순결해야 한다거나 성행위에 적극적으로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남녀 구분적 성의식, 여성 성적 대상화는 여성을 그 자체로 보다는 육체적 성적 대상물로 보는 것을 말하며, 강간통념은 강간시 피해자가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식의 태도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성의식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성희롱에 있어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Burt, 1980; Lonsway and Fitzgerald, 1994; 김정인외, 2006; 이명신, 2014). 즉 가부장 가정환경은 성희롱에 대한 태도나 이중적 성의식, 여성 성적 대상화, 강간통념 등에 영향을 주고 그러한 성의식 요인들을 매개로 성희롱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의 경우 특히 온라인상의 SNS에서의 성희롱을 설명함에 있어 페미니스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와 같은 성희롱태도 등의 성의식 요인들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대학생의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은 오프라인에서의 신체적 성폭력의 경우와 달리 그 심각성에서 다소 낮아 소위 강간통념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 그 대신 평소에는 법을 지켜야 하고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온라인 상황에서 중화를 함으로써 그러한 중화가 성희롱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림 1] SNS상의 성희롱 설명을 위한 연구모델



그런데 본 연구에서 주요 독립변인으로 주목하는 가부장 가정요인은 앞서 여러 성의 식 변인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대한 중화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한 중화를 통해 성희롱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가부장환경과 중화를 연결 짓는 논의는 많지 않았지만 중화는 Sykes와 Matza(1957)가 언급한 잠재적 가치문화 환경 하에서 작동한다고 주장했듯이 사회통제나 도덕규범이 견고한 환경에서보다는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그 여지가 더 높다. 실제로 Boyle과 Walker(2016)는 남자 대학생들의 스포츠 클럽하우스의 파티문화에서의 성폭력하위문화가 어떻게 중화를 통해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있다. 가부장 가정환경에 있는 대학생들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지위가 낮다는 것을 경험하는 환경에서 그와 같은 성희롱을 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이나 여건에 어느 정도 놓이게 되는데 그러한 환경은 중화 가능성을 높이고 성희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처럼 이 연구에서는 가부장가정일수록 성희롱에 대한 태도를 포함해 이중적 성의식, 여성 성적 대상화, 강간통념과 그리고 중화의 경향이 높아 SNS에서의 성희롱을 더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모델을 제시하고 이 모델을 검증하기로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 자료

는 2018년 서울시에 재학 중인 7개 대학의 대학생을 조사한 것으로 7개 대학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각 학교에서 성과 학년을 할당하여 30여명씩 총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중 SNS이용자 270명을 최종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다룰 SNS상에서의 성희롱 경험은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몇 번 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1)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글, 사진, 동영상을 전송한 적이 있다, 2) 상대방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야한 대화를 하여 성적 수치심을 준 적이 있다, 3)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이나 성적으로 비난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4) 상대방의 외모나 신체 특징 등에 대해 놀린 적이 있다 등의 네 질문에 ‘0번’ ‘1년에 1번’, ‘1년에 2-3번’, ‘한 달에 1번’, ‘일주일에 1회 이상’의 항목(0-4점)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가부장가정은 기존 연구들(이성식, 전신현, 2001; 이성식, 2011)에 근거하여 “우리 집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꼼짝 못한다”,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상당히 상당하여 다른 사람들은 꼼짝 못한다”, “우리 집에서 부모님은 자식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한다” 등의 세 문항을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883$).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다룰 변인들로 우선 성희롱태도는 앞서 SNS상의 성희롱행위에 대한 위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해 각각 얼마나 나쁘다고 생각하는지의 네 문항을 질문하였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한 후 최종적으로는 역으로 코딩하였다($\alpha=.963$).

이중적 성의식과 여성 성적 대상화는 김은경(2000)의 문항을 사용했는데, 이중적 성의식은 “성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남자답다”, “성행위에 적극적인 여성은 아무래도 여성답지 못하다”, “남성은 성적으로 강해야 하고 성관계를 주도해야 한다”, “결혼전까지 순결한 남자는 어리숙하다”, “여자는 결혼전 순결해야 한다” 등 다섯 문항을 ($\alpha=.832$), 여성 성적 대상화는 “여성은 예쁘고 날씬해야 한다”, “여성의 가치는 얼마나 섹시한가에 있다”, “여성하면 성적 대상이라는 생각이 든다”의 세 문항을 질문하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798$).

강간통념은 Burt(1980)가 사용한 척도의 일부로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행은 불가능하다”, “성욕이 왕성한 여자들이 대개 성폭행을 당한다”, “여자가 친근감이 있게 남자를 대하는 것은 성적 접촉을 허용한다는 표시이다”, “여자가 노출이 심하고 야한 옷

을 입는 것은 성피해를 자초하는 일이다”, “여성은 내심 자신을 거칠게 다루는 남성을 좋아한다” 등의 다섯 문항을 질문하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777).

본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중화는 ‘책임의 부인’, ‘피해자 부인’, ‘손상의 부인’, ‘비난자의 비난’, ‘충성심 요구’ 등의 중화의 기술에 해당하는 다섯 질문을 SNS상의 성희롱에 비추어 구성하였다. 이에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는 SNS에서 누군가를 성희롱할 수 있다”, “SNS에서 성희롱하는 것은 직접 얼굴을 마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는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 “SNS상에서의 성희롱은 하는 사람의 잘못만은 아니고 상대방도 어느 정도 성희롱당할 짓을 한다”, “주위 사람들이나 유명인들도 SNS에서 성희롱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성희롱을 한다고 비난받을 필요는 없다”, “친구들이 SNS상에서 특정 인물을 성희롱할 때 친구들과의 단합을 위해서라면 나도 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등 다섯 문항을 질문하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928).

여기서는 이와 같은 변인들의 기술통계는 SPSS로, 그리고 이들 변인으로 구성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구조방정식모델의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IV. 분석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보면 <표 1>에서와 같이 조사대상자 중 남성은 125명(46.3%), 여성은 145명(53.7%)로 여성이 다소 많았고 조사대상자 대학생의 연령 분포는 18세부터 28세까지였는데 평균연령은 21.37세였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인으로 가부장가정은 3-15범위에서 평균값이 5.425로 가부장가정인 경우는 낮았다. 매개변인으로 성희롱태도는 4-20범위에서 평균값이 6.678, 이중적 성의식은 5-25범위에서 평균값이 8.237, 여성 성적 대상화는 3-15범위에서 평균값이 54.878, 강간통념은 5-25범위에서 평균값이 7.828로 그 점수가 낮은 편이었고, 중화는 5-25범위에서 평균값이 7.061로 역시 낮았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SNS상의 지난 1년간의 성희롱 경험횟수는 0-16범위에서 평균값이 1.944로 매우 낮았다.

〈표 1〉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구분		빈도	%	평균	표준편차	범위
성	남성	125	46,3			
	여성	145	53,7			
연령				21,37	2,047	18-28
가부장가정				5,425	2,844	3-15
성희롱태도				6,678	3,476	4-20
이중적성의식				8,237	3,536	5-25
여성성적대상화				4,878	2,327	3-15
강간통념				7,828	3,202	5-25
중화				7,061	3,531	5-25
SNS성희롱				1,944	3,568	0-16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을 AMOS를 통해 검증함에 있어 그 모델의 적합성을 보면 <표 2>에서와 같다. 분석결과 기본모형부합지수 카이제곱의 수치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지만, 모델적합도를 위해 여러항의 공분산을 연결한 결과 CFI와 TLI의 수치가 .90을 넘었고, RMSEA도 .08보다는 작아 수용수준의 모형부합지수를 제시하는 등 전체 적으로 측정모형이 알맞게 구성되어 어느 정도 충족된 모형을 나타냈다.

〈표 2〉 연구모형의 기본 부합 지수

지수	수정모델
카이제곱	956,831***
Df	400
CFI	.918
RMSEA	.072
TLI	.904

* p-value<0.05, ** p-value<0.01, *** p-value<0.001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의 AMOS 분석결과는 <표 3>에서 제시된다. 우선 남성이 여성보다 성희롱태도, 이중적 성의식, 여성 성적 대상화, 강간통념, 그리고 중화가 더 높은 것을 제시하였으나 남녀간의 SNS상의 성희롱에는 직접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은 그와 같은 매개변인들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했고 SNS성희롱에는 $p < .05$ 수준에서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으로 가부장가정의 영향력을 보면 가부장가정은 성희롱태도, 이중적 성의식, 여성 성적 대상화, 강간통념, 그리고 중화에 $p < .001$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즉 가부장가정의 대학생일수록 성희롱을 용인하는 태도를 갖고, 이중적 성의식, 여성 성적 대상화, 강간통념 의식이 높으며, 그리고 중화의 가능성도 높은 것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가부장가정은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SNS상의 성희롱에도 직접적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다. 즉 가부장가정의 대학생이 SNS상의 성희롱 경험이 더 많다는 것을 제시한다.

〈표 3〉 SNS 성희롱 연구모델의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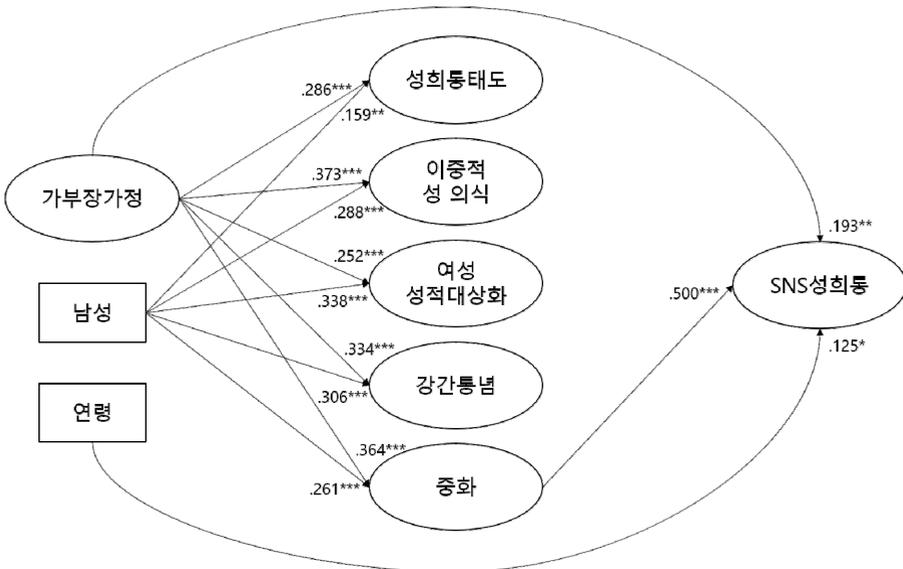
	구분	b	β
성희롱태도	<--- 남성	.268**	.159
이중적성의식	<--- 남성	.361***	.288
여성성적대상화	<--- 남성	.595***	.338
강간통념	<--- 남성	.267***	.306
중화	<--- 남성	.345***	.261
SNS성희롱	<--- 남성	.134	.094
성희롱태도	<--- 연령	.010	.024
이중적성의식	<--- 연령	-.009	-.029
여성성적대상화	<--- 연령	-.037	-.085
강간통념	<--- 연령	-.022	-.104
중화	<--- 연령	.031	.095
SNS성희롱	<--- 연령	.043*	.125
성희롱태도	<--- 가부장가정	.249***	.286
이중적성의식	<--- 가부장가정	.241***	.373
여성성적대상화	<--- 가부장가정	.229***	.252
강간통념	<--- 가부장가정	.151***	.334
중화	<--- 가부장가정	.248***	.364
SNS성희롱	<--- 가부장가정	.142**	.193
SNS성희롱	<--- 성희롱태도	.023	.027
SNS성희롱	<--- 이중적성의식	.045	.040
SNS성희롱	<--- 여성성적대상화	-.003	-.003
SNS성희롱	<--- 강간통념	-.180	-.111
SNS성희롱	<--- 중화	.538***	.500

* p-value<0.05, ** p-value<0.01, *** p-value<0.001

그런데 본 연구에서 성희롱태도, 이중적 성의식, 여성 성적 대상화, 강간통념, 그리고 중화 등 매개변인들의 종속변인 SNS상의 성희롱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성희롱태도, 이중적 성의식, 여성 성적 대상화, 강간통념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화만이 $p < .001$ 수준에서 높게 SNS상의 성희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행위에 중화를 할수록 SNS상에서 성희롱을 더 저지르는 것을 제시한다.

이 결과를 연구모델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림 2]에 제시되듯이 가부장가정의 대학생은 성희롱태도, 이중적 성의식, 여성 성적 대상화, 강간통념, 그리고 중화의 가능성이 높지만 그 매개변인 중에서 SNS상의 성희롱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변인은 중화로서, 즉 가부장가정의 대학생은 중화의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이유로 SNS상의 성희롱을 더 하게 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가부장가정의 대학생은 그러한 매개변인들에 매개됨이 없이 직접적으로도 SNS상의 성희롱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그리고 남자 대학생이 중화를 하여 SNS상의 성희롱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SNS상의 성희롱 설명을 위한 연구모델의 분석결과



V. 결론

이 연구는 SNS상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페미니스트 범죄학들의 주장에 따라 가부장요인을 주요 설명요인으로 제시하였고 가부장가정일수록 SNS상에서 성희롱 범죄를 더 하게 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아울러 가부장가정이 어떻게 SNS상에서 성희롱에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매개변인들을 고려했는데 기존 페미니스트 논의들에 따라 성희롱태도, 이중적 성의식, 여성 성적 대상화, 강간통념을 제시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화의 영향력이 중요할 것이라는 가설과 함께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그 모형을 검증하고자 했다.

본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예측대로 가부장가정의 대학생은 SNS상의 성희롱을 더 저지르는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본 연구모형에 따라 가부장가정의 대학생은 성희롱태도, 이중적 성의식, 여성 성적 대상화, 강간통념, 그리고 중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매개변인들 중에서 SNS상의 성희롱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변인은 중화가 유일했다. 즉 가부장가정의 대학생은 중화의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이유로 SNS상의 성희롱을 더 하게 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가부장가정의 대학생은 그러한 매개변인들에 매개됨이 없이 직접적으로도 SNS상의 성희롱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그리고 남자 대학생이 가부장의식 등의 점수가 높았고 또한 중화를 하여 SNS상의 성희롱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기존 현실에서의 성희롱 논의에서와 같이(Powell, 1986; Pryor, 1987; Smith, 1990; Simonson and Subich, 1999; Russell and Trigg, 2004) 가부장가정 등의 가부장요인이 SNS상의 성희롱에도 주요 요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의 경우는 기존 성희롱에서와 달리 그 영향이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지만(이성식, 2005), 본 연구에서처럼 SNS상의 성희롱의 경우는 상대가 현실에서 서로 이미 아는 사이의 경우가 많고 현실의 성희롱 경우에서와 같이 상대의 성을 알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이유에서 성희롱을 저지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본 연구결과는 가부장가정의 대학생들이 기존 페미니스트 논의에서와 같이 성희롱을 용인하고 이중적 성의식이 높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강간통념 등이 높은 것을 제시하지만 이들 요인은 SNS상의 성희롱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제시해 기존 논

의와는 결과가 달랐다. 이러한 결과는 그와 같은 가부장의식의 설명력은 낮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그와 같은 요인들이 현실에서의 좀 더 심각한 성폭력 등을 잘 설명할지는 몰라도 온라인상의 특히 대학생들의 행위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했다.

본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예측대로 중화가 SNS상의 성희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을 제시했다. 이는 물론 중화가 오프라인 현실의 성범죄에도 잘 적용된다는 결과가 있지만(Scully and Mazolla, 1984; Weiss, 2009; Boyle and Walker, 2016) 기존 가부장 의식들이 SNS상의 성희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않고 중화만이 유의미했다는 것은 다소 오프라인 현실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하다. 물론 본 연구의 대상이 평소 성희롱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일반인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중화의 영향력이 더 컸고 이 결과를 모든 층에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쨌건 이 결과는 가부장가정의 영향력이 중요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가부장가정의 영향은 중화를 통해 매개될 수 있으며 중화가 성희롱에 매우 중요한 설명요인이라는 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성폭력 등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각종 성범죄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부장가정이 극복되고 아울러 중화의 여지를 없애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전통적 가부장의식이나 성희롱에 대한 태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중화에 대한 교육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온라인 성범죄는 그 외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그러한 원인들을 모색하고 검증하는 노력이 더욱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활발한 연구를 향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은경. 2000. 성의 상업화가 성의식 및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 김은경. 2001. 사이버성폭력의 현실과 쟁점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보 7: 72-117.
- 김정인, 손영미, 김효창. 2006. 성별 및 성희롱 경험에 따른 성희롱 통념과 성역할 관련 태도들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4): 377-397.
- 김한민, 김기문. 2018. 온라인 게시판에서 익명성과 악성댓글 사이의 관계 연구: 합리화와 도덕성의 매개적 역할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31(6): 1095-1115.
- 남정림. 2005. 인터넷게시판상의 성폭력의 특성과 합리화 메카니즘. 한국여성학 21(3): 39-66.
- 이명신. 2014. 성희롱의 재정의: 남녀 대학생의 강간통념, 성희롱 인식, 성적 괴롭힘 행동을 중심으로 경험적 재구성. 젠더와 문화 7(1): 43-97.
- 이성식. 2005. 청소년 사이버성폭력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17(1): 125-144.
- 이성식. 2010. 청소년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성비행 원인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1(2): 153-175.
- 이성식. 2011. 가부장적 가정의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 차이. 한국청소년연구 22(3): 97-117.
- 이성식, 박정선. 2009. 청소년 인터넷 악성댓글에 있어 중화의 작용: 세 이론의 검증. 형사정책 21(2): 245-266.
- 이성식, 전신현. 2001. 가부장적 가정과 여자청소년의 비행: 대립되는 두 가설의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5(5): 173-198.
- Agnew, R. 1994. The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and Violence. *Criminology* 32: 555-80.
- Agnew, R. and A.R. Peters. 1986. The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3: 81-97.
- Boyle, K.M. and L.S. Walker. 2016. The Neutralization and Denial of Sexual Violence in College Party Subcultures. *Deviant Behavior* 37: 1392-1410.

- Burt, M.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217-30.
- Dobash, R.E. and R.P. Dobash. 1979. *Violence against Wives: A Case against Patriarchy*. New York: Free Press.
- Dodder, R.A. and S.P. Hughes. 1993. Neutralization of Drinking Behavior. *Deviant Behavior* 14: 65-79.
- Dutton, D.G. 1986. Wife Assaulter's Explanations for Assault: The Neutralization of Self-Punishment.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8:381-390.
- Hindelang, M.J. 1970. The Commitment of Juveniles to Their Misdeeds: Do Delinquent Drift? *Social Problems* 17: 502-509.
- Johnson, R.J. 2014. Rape and Gender Conflict in a Patriarchal State. *Crime and Delinquency* 60: 1110-1128.
- Lonsway, K.A. and L.F. Fitzgerald. 1994. Rape Myths: In Review.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 133-164.
- Minor, W.W. 1981.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A Reconceptualization and Empirical Examin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8: 295-318.
- Mitchell, J., R.A. Dodder, and T.D. Norris. 1990. Neutralization and Delinquency: A Comparison by Sex and Ethnicity. *Adolescence* 25: 487-497.
- Powell, G.N. 1986. Effects of Sex-Role Identity and Sex on Definitions of Sexual Harassment. *Sex Roles* 14: 9-19.
- Pryor, J.B. 1987. Sexual Harassment Proclivities in Men. *Sex Roles* 17: 269-290.
- Rettinger, D. and Krammer, Y. 2009. Situational and Personal Causes of Student Cheating. *Research in High Education* 50: 293-313.
- Russell, B.L., and Trigg, K.Y. 2004. Tolerance of Sexual Harassment: An Examination of Gender Differences, Ambivalent Sexism, Social Dominance, and Gender Roles. *Sex Roles* 50: 565-573.

- Scully, D. and J. Marolla. 1984. Convicted Rapist' Vocabulary of Motive: Excuses and Justifications. *Social Problems* 31(5): 530-544.
- Simonson, K., and Subich, L.M. 1999. Rape Perceptions as a Function of Gender Role Traditionality and Victim-Perpetrator Association. *Sex Roles* 40: 617-634.
- Smith, M. D. 1990. Patriarchal Ideology and Wife Beating: A Test of a Feminist Hypothesis. *Violence and Victims* 5: 257-273.
- Sykes, G.M. and D. Matza. 1957. Technique of Neutralization: A Theory of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2: 664-70.
- Topalli, V. 2005. When Being Good is Bad: An Expansion of Neutralization. *Criminology* 43: 797-835.
- Weiss, K.G. 2009. Boys will be Boys and Other Gendered Accounts: An Exploration of Victims' Excuse and Justifications for Unwanted Sexual Contact and Coercion. *Violence against Women* 15(7): 810-834.
- Yllo, K., and Straus, M. A. (1990). Patriarchy and Violence against Wives: The Impact of Structural and Normative Factors. In M. A. Straus & R. J. Gelles (Eds.),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pp. 383-399). London: Transaction.

Patriarchal Family, Neutralization, and Sexual Harassment in SNS

Lee Seong-Sik* · Jang Ha Young** · Lee Chaeheon***

This study provides hypothesis about a patriarchal environmental factor for explaining sexual harassment in SNS according to feminist criminologists' arguments and tests its effect on college students' sexual harassment in SN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tervening variables such as attitude toward sexual harassment, dual sexual opinion, sexualization of women, rape myths, and neutralization in order to explain how patriarchal family factor have an influence on sexual harassment in SNS, construct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tests it. Using data from 270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in Seoul, it is shown that a patriarchal family has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sexual harassment in SNS, In addition results show that a patriarchal family has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attitude toward sexual harassment, dual sexual opinion, sexualization of women, rape myths, and neutralization. However, neutralization among intervening variable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sexual harassment in SNS. Those results imply that a patriarchal family has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neutralization, which in turn has a positive effect on sexual harassment in SNS. Result also show that a patriarchal family has a direct effect as well as an indirect effect on sexual harassment in SNS,

❖ key words: Sexual harassment in SNS, Patriarchical family, Neutralization,
Feminist Criminology

* 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 Sociology, Soongsil University.

** Master, Soongsil Graduate School.

*** Assistant Manager, Kstat Research.

투고일 : 2월 18일 / 심사일 : 3월 23일 / 게재확정일 : 3월 23일